

# 주요국제문제분석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2006-10

2006. 3. 20



외교안보연구원

## 한·미 FTA의 외교·안보적 중요성

교수 이 동 휘

### 1. 한·미 FTA 개관

#### 가. 개요

- 한국과 미국은 2005년 2월 3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음.
- 2006년 3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간 제1차 예비협약에서는 협상 개시에 대한 미국 의회에서의 90일의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6년 6월 5일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음.
- 미국 행정부가 무역진흥법(TPA: Trade Promotion Act, XXI, P.L. 107-210)으로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신속협상권'이 2007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는 점과 최종 협상안에 대한 90일의 의회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7년 3월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음.
- 지역무역협정(RTA)의 하나인 FTA는 체결 국가 간에 무관세의 형태로 상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인데, RTA에는 이외에도 역외 공동관세를 설정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형태가 있음.

#### <목 차>

1. 한·미 FTA 개관
2. 한·미 양국의 FTA 정책
3. 외교·안보적 중요성
4. 고려사항

한·미 양국이  
2006년 6월 FTA  
공식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배경으로  
다자간 무역 협상인  
WTO의  
DDA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반사적으로 RTA,  
특히 FTA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는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작용...

- 현재 WTO에 통보되어 있는 300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중 약 2/3가 1995년 WTO 출범 이후에 통보되었는데, 현재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중에는 FTA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교역 규모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 간에 경제관계 심화를 추구함으로써 지역 경제통합의 초기 단계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인접국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원거리 국가간 또는 지역협력체 간에도 체결될 수 있음.
- 또한 최근에 체결되는 FTA의 주요 내용은 관세 철폐를 넘어서, 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음.

나. 합의 배경 및 경제적 예상 효과

- 금번 한·미 양국이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배경으로는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우선 들 수 있을 것임.
- 1990년 초반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거대 지역 경제 협력이 출범한 이래 지역무역협정은 다자무역 체제인 WTO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특히, WTO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하는 최근의 상황은 반사적으로 지역무역협정, 특히 FTA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음.
  - 그 예로, 2003년 칸쿤(Cancun) WTO 각료회의의 난항 이후 양자간의 지역무역협정이 급증되고 있는데, 2004년 1월~2005년 2월까지의 약 1년의 기간에도 43개의 지역무역협정이 WTO에 통보된 바 있음.
-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감안, 상대적으로 FTA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미 양국도 2000년대에 들어와 FTA 체결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각각 칠레와 싱가포르 등 비교적 교역 규모가 작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FTA라는 규모가 큰 FTA 협상에 착수하게 된 것임.
- 한·미 FTA가 체결되어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양국간 무역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그 경제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에 의하면,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생산은 1.94%(27조원), 고용은 0.63%(10만4000명),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99%(135억불) 각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수출 증가가 15.1%(71억불)인 반면 수입이 39.4%(122억불) 증가되어 약 51억불의 감소가 예상된다.

## 2. 한·미 양국의 FTA 정책

### 가. 한국

#### (1) 현황

-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극복을 계기로 WTO를 축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 유지 노력과 병행하여 FTA의 체결도 적극화하기 시작하였음.
- 1998년 11월 칠레를 상대로 최초 FTA 협상을 시작한 이래, 현재 한·칠레 FTA(2004. 4), 한·싱가포르 FTA(2006. 3)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한·EFTA(2005. 7)와 한·아세안(2005.12) FTA도 타결된 바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대상국으로는 캐나다·멕시코·일본 등이 있으며, 인도·남미공동시장(MERCOSUR)·중국과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표 1> 참조)
- 한국의 FTA 추진에는 대내외 양 측면에서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FTA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여타 지역 무역협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는 동시에 거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음.
- 한편, 대내적으로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개방 조치들을 FTA의 틀 속에서 진전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선진화를 앞당기는 데 두고 있음.

한국의 FTA 정책은 대외적으로 여타 지역 무역협정의 부정적 효과 예방 및 거대 경제권 중심의 수출 시장으로의 안정적 확대, 대내적으로는 FTA의 틀 속에서 적극적·전향적 개방 조치들의 진전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선진화의 조기 실현에 있으며...

한국 FTA  
정책의 특징은  
첫째, 추진 지연의  
부정적 효과 최소화  
및 상호보완적  
이점 최대화를 위한  
동시다발적 추진;  
둘째,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과의  
유기적 연관성 및  
대북 정책과의  
상관관계,  
선진 경제권 및  
신흥 유망시장 진출  
거점 확보를 고려한  
전략적 수단화;  
셋째, 현행 WTO  
규범을 넘어서는  
수준의 포괄적  
접근 시도 등으로...

## (2) 추진 방향

### (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 한국의 FTA 추진 방향의 특징 중 하나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있음. 가속화되고 있는 FTA의 확산 추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어 왔던 FTA를 다수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시킴으로써, FTA 추진 지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동시 추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제 FTA간 상호보완적 기능의 이점을 최대화한다는 것임.

### (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 한·일, 한·중 FTA를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상정한 바탕 위에서 추진하고, 또 동북아 협력도 대북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추진하는 등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 외적인 요소를 포함한 전략적 고려를 하여 왔음.
- 또한 궁극적으로 거대 경제체인 미국·EU 등 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염두에 두고, 인접 지역 경제, 예를 들어 멕시코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진전시키는 특징을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인도 등 BRICs 국가들에 대한 FTA 체결도 추진함으로써 거대 시장과 신흥 유망시장 등 거점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해 왔음.

### (다) 무역의 규범을 포괄

- 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상품 분야에서의 교역 증대를 넘어서 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경제 관계의 심화를 목표로 현행 WTO 규범을 넘어서는 수준의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FTA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나. 미국

### (1) 현황

- 1985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미국은 1990년대 전반까지 현재의 NAFTA 구성국인 캐나다·멕시코와 각각 FTA를

- 체결한 바 있음.
- 이후 2000년대 초 요르단과의 FTA 체결까지 FTA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미국은 최근 수년간 다수의 대상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FTA 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3년에 싱가포르·칠레 등 6개국과 체결한 데 이어, 2005년에는 호주·모로코 및 중남미 5개국 등 10여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바 있음. (<표 2> 참조)
  - 여기에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무역 자유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인식 위에서 FTA의 추진을 통해 한편으로는 WTO에서의 협상 진전을 자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WTO 체제의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한 보호장치(fall back position)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둘째는 9·11 사태 이후 대외정책의 전반적인 변화임. 2002년 9월 발표된 ‘국가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여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축소시키는 자유 무역의 역할을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의 대두를 억제하는 주요 요소로 간주한 바 있음.
  - 이러한 맥락 하에서 2003년 5월 당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이고 현재 국무성 부장관인 쥘릭(Robert B. Zoellick)은 FTA 대상국 기준의 하나로 ‘미국의 대외 및 안보 정책에 대한 협력 정도’를 지적함으로써, 반테러·반확산으로 대변되는 9·11 이후의 대외정책 변화 속에서 FTA가 미국의 중요한 대외정책 수단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2004년 1월 공개된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ing Office: GAO)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FTA 대상국 기준으로 여섯 가지를 거론하는 가운데, ‘미국 대외 및 경제 정책상의 이해에 부합’되어야 함을 그 하나로 적시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진 바가 있음.

미국은  
첫째,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차원의 무역 자유화  
협상 진전 및  
WTO 체제의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한 보호장치  
구축의 일환으로,  
둘째, 9·11 사태  
이후 대외정책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2003년 이후  
적극적인 FTA 체결  
노력을 기울여...

(2) 추진 방향

(가) 경쟁적 자유화를 추구

- 미국 FTA 정책의 특징중 하나는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의 추구라고 할 수 있음.

- '경쟁적 자유화'는 세계적 차원의 다자무역 체제의 유지가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도, 이의 진척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양자 차원의 FTA, 그리고 NAFTA와 같은 지역 차원의 다자주의 및 미주자유무역지역(FTAA)과 같은 지역간 다자주의(super-regionalism) 등 다양한 수준에서 자유화 노력을 동시에 추구하여 경쟁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겠다는 전략임.

(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 두 번째 특징으로는 FTA를 경제적 목적 외에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들 수 있음.
- 1985년 체결된 미국·이스라엘 FTA가 양국간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치·안보적 고려 하에서 체결되었으며, 이후 2000년대 초 체결된 미국·요르단 간의 FTA도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 '오슬로 평화 협상'과의 관련 하에 추진됨으로써, 2건의 FTA가 경제보다는 정치·안보적 측면이 강조된 바 있음.
- 이러한 정치·안보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2003년 이후 체결되어 온 모로코·호주·싱가포르·바레인 등과의 여타 FTA도 9·11 이후 전세계적 차원에서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기여하고 있거나 향후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보여지고 있음.
- 즉, 미국은 9·11 이후 가속화시키고 있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사 동맹 재조정 작업과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는 다수 대상국들과의 FTA 체결 작업을 동시에 병행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세계적 차원의 복합적 동맹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

- 세 번째 특징으로는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수의 FTA 추진이 고려되고 있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임.
- 현재의 추진 현황을 지역별로 개관해 보면, 남미 지역은 칠레·페루·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했고, 중미 6개국과는 2006년 1월

미국 FTA  
정책의 특징은  
첫째, 양자·지역·  
지역간 차원의  
다양한 수준에서  
'경쟁적 자유화'  
추구;  
둘째, 정치·안보적  
측면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세계적  
차원의 복합적  
동맹망' 구축;  
셋째, 해당 지역의  
전략적 특성을  
반영한 세계 전 지역  
대상 추구임...

1일 발효 예정이었던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체결한 바 있는데, 중남미 지역에 대한 미국의 FTA는 궁극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망라하여 FTAA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연결되어 있음.

-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요르단과의 FTA 이후 모로코·바레인·오만 등과 이미 체결된 바 있는데, 현재는 UAE 및 이집트와의 FTA가 추진되고 있음. 미국의 중동 지역에 대한 FTA 추진은 9·11 이후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중동 질서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를 창설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에 따라 이미 대미 수출에 있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5개 국가로 구성된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의 FTA를 추진 중에 있는데, 향후 SACU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전략 자원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 전개에 주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호주와의 FTA 체결에 이어 현재 ASEAN·태국 및 한국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의 협상도 예상되고 있음. 미국은 경제적 이점 외에도 대중국 견제 및 동아시아 단위의 지역협력 움직임에 대한 영향력 강화 노력의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의 FTA 기회를 활용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구주 지역과 관련해서도 EU 지역에 대한 접근 강화를 염두에 두고 비EU 국가인 스위스와의 FTA 협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양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도 대테러전에서의 협력 강화와 석유 자원 확보를 고려하여 2004년 6월 FTA의 전(前)단계로 간주될 수 있는 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 Investment Frame Agreement: TIFA)을 체결한 바 있음.
- 이렇듯 미국의 FTA 정책은 중남미·중동·아프리카·아시아 및 구주 지역을 대상으로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상 지역을 다변화함으로써 지역간의 경쟁적 자유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전략적 관점에서의 특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호주에 이어  
현재 ASEAN·  
태국·한국·  
말레이시아와도  
경제적 이점 외에  
대중국 견제 및  
동아시아 단위의  
지역협력 움직임에  
대한 영향력 강화  
노력의 차원에서  
FTA 협상을  
추진중...

### 3. 외교·안보적 중요성

#### 가. 한·미 FTA의 특징

##### (1) '혼합 목적형'의 FTA 추진

- 미국 FTA 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그 대상국들을 주요 관심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해 보면, 세 가지의 유형을 설정해 볼 수 있음.
- 첫째는 '안보 위주형 FTA'로, 1985년에 체결된 미·이스라엘 FTA와 2002년에 체결된 미·요르단 FTA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 FTA는 공히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 2000년 현재 미국 경제 규모가 이스라엘의 86배, 요르단의 1000배에 이르러 경제 목적이 분명한 NAFTA의 7.5배에 견주어 볼 때, 이스라엘·요르단과의 FTA 체결은 정치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일차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음.
- 둘째는 '통상 위주형 FTA'로, NAFTA를 위시하여 2003년에 체결된 미·칠레 FTA와 미·싱가포르 FTA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 FTA는 각각 미국의 통상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긴요한 지역 들인 중남미와 동남아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려는 노력, 즉 FTAA의 추진과 ASEAN과의 FTA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두보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셋째는 '혼합 목적형 FTA'로서, 통상의 확대라는 경제적 목적과 함께 안보 관계의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임.
  - 이러한 혼합 목적형의 FTA는 냉전 종식 이후 경제력이 국제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와 안보 관계의 동시추구 경향이 강화되어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특히 9·11 사태 이후 반테러 정책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캐나다, 멕시코 제외) 중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브라질과 함께 최우선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결속되어 있는 주요 안보 파트너라는 점에서도 포괄성을 지니는 혼합 목적형

한·미 FTA의 특징은 통상의 확대라는 경제적 목적과 함께 안보 관계의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 목적형 FTA'로서, 특히 9·11 사태 이후 반테러 정책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FTA의 선도적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표 3> 참조)

(2) 경제적 이해의 조화

- 향후 약 1년간의 형성 과정을 통해 성안될 한·미 FTA의 기본적인 특징은 양국간 경제적 이해의 상호 조화라고 할 수 있음.
- 우선, 국제환경 변화에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후반 이래 한국은 기존의 다자 체제를 위주로 하던 통상 정책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 FTA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국제통상 환경의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무역 대상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던 1980년대의 통상 정책으로부터 자국 경제의 신경제로의 전환 추세를 반영, 주요 대상국과의 FTA를 통해 세계화의 가속을 추구하는 한편, 점증되는 무역적자 상황의 개선을 겨냥하고 있음.
- 이렇듯 양국 공히 통상 정책에 있어서 FTA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미 FTA의 추진은 한·미 양국이 각국의 통상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장(場)으로서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또 다른 측면은 한·미 경제관계 변화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임.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 경제와의 경기 동조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 가속을 통한 미국 경제 시스템의 세계 표준화 과정 안에서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임.
- 또한 한국이 외환 위기를 계기로 대한(對韓) 직접투자를 적극 수용하게 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진출도 확대되고, 이에 따라 산업내무역(intra-industry)도 증대되고 있음.
- 즉, 한·미 FTA는 경기 동조화 현상이 확대되고 직접투자가 증대되는 등 심화되고 있는 한·미 경제 간의 상호 의존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이며, 그 결과 IT 분야 등에서 한·미 양국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도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임.

한·미 FTA는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장(場)으로서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양국 경제 관계의 심화(경기 동조화 현상 확대 및 직접투자 증대 등)에 따른 상호 의존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

(3) 외교 전략적 필요성의 충족

- 한·미 FTA는 통상과 안보 측면을 포괄하는 ‘혼합 목적형’

한·미 FTA는  
한국의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에서  
'허브' 역할 기반  
구축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관리에 유용한 경  
제적 토대 마련,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견제 수단 및 중국,  
일본과의 향후  
통상 협상에서  
유용한 자극제가  
되는 효과가 있어...

FTA로서, 양국간 경제적 이해를 조화시키는 바탕 위에서, 제도화를 통해 양국 간에 심화되는 상호 의존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외에 양국의 외교 전략적 요구도 충족시키게 될 것임.

- 한국의 경우, 한·미 FTA는 현재 동아시아와 동북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반 지역협력 구상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대처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임.
- 특히,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서비스·금융 및 IT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에서의 중심적 역할(hub)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유리해질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국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 협력에서의 주요 역할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또한 FTA를 통한 한·미 경제 관계의 공고화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통일 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유용한 경제적 토대가 될 것임.
- 미국의 경우, 한·미 FTA는 한·중 교역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의 대미 수출을 위한 중간재를 제공하고 있고(대중 수출의 85%), 한국과 중국 간의 대미 수출 증가율 상관계수가 0.9라는 특성 등을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일정 수준 견제(counter)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한·미 FTA 협상에서 농업 분야 문제가 순조로이 해결될 경우 일본과의 향후 통상 협상에서도 유용한 자극(pressure)을 줄 수 있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미국의 21세기 전략이 중앙아시아를 핵심 지역으로 하는 유라시아로의 접근 강화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한국과의 FTA는 미국이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데 유리한 관문(gateway)으로서 한국의 지정·지경학적 입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게 될 것임.

#### 나. 한·미 FTA의 기대 효과

##### (1) 한·미 동맹 발전에 기여

- 한·미 FTA는 체결될 경우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점 외에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 되는데,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 관계의 공고화를 들 수 있을 것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동맹의 재조정 과정은 병력 재배치, 사령부 이전, 일부 병력의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등 중요 사안들에 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한·미 동맹의 총체적 비전을 구상하는 단계에 와 있음.
  - 새로이 구상되는 동맹의 비전은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안보 환경의 변화를 조망하는 토대 위에서 동맹 관계를 포괄성·역동성·호혜성을 지니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간의 FTA 체결은 기존의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한 군사협력 관계의 지속, 2006년 1월 시작된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한 외교·안보적 측면의 협력 강화에 이어 한·미 동맹 관계를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호혜적이고도 역동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유용한 기제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
  - 한·미 FTA는 체결될 경우,
    - 첫째, 제도화를 통해 한·미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켜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인도를 제고함으로써, 군사 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동시에 전반적인 경제·기술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안보 태세의 강화도 가능해질 것임.
    - 둘째, FTA 체결에 따르는 협력 기회의 확대와 통상 마찰 가능성의 축소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반미 감정의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간 정책 조화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셋째, 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상호 보완해 나가는 기제로서의 FTA 체결은 수평적 관계의 제도화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치·안보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임.

(2) 외교 자원의 확충

-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한 경제 관계 심화로 양국 공히 증대되고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중(對中) 의존도를 적정 수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한·미  
FTA는 한·미  
동맹 관계를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호혜적이고  
역동적으로  
공고화시켜  
나가는 데  
유용한 기제의  
하나로 활용돼...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인도  
등 지역 질서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다수 국가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력을  
진전시키는 분수령적  
계기가 마련될 것...

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질서의 유지와 재편 과정에서 각국의 정치·외교적 행동반경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한·미 FTA를 통한 양국 간의 다방면에서의 경제협력 강화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자원 부족 현상, 환율의 불안정성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도 확보하게 해 줄 것이며, 특히 전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한 에너지 관련 영향력을 감안할 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
-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도 경제의 급성장 가능성과 군사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감안한 미국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대인도 접근을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한·미 관계의 재구축 노력은 경제적·안보적 차원의 양 측면에서 중국·인도 등 지역 질서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3) 지역 협력의 실질적 진전

- 한·미 FTA의 체결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던 한국의 FTA 추진을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수세적 차원에서 FTA를 추진해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더욱 공세적 차원에서 FTA를 추진할 수 있는 분수령적 계기를 마련할 것임.
- 또한 최근의 동아시아 차원 지역협력 움직임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적 의도가 ASEAN+3와 EAS 추진 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 가운데 가속화되는 반면, 핵심 부분인 한·중·일 간의 동북아 협력은 민족주의 경향의 고조 등으로 감속화되는 복합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미 FTA는 불확실성이 점증되는 지역협력 환경 속에서 한국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차원에서 바람직한 지역협력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외교적 입지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한·미 FTA의 체결은 무역·투자 및 기술 등 경제 각 부문에서 한국과 함께 미국에 상당 수준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등을 자극함으로써 한·중 또는 한·일 FTA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한·중·일간 동북아 FTA의 필요성에 대한 역내국간

인식을 제고시킬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지체되고 있는 DDA 협상에도 자극이 됨으로써 한국의 대외경제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에 유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한·미 FTA는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지역 협력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역외국인 미국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channel)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를 감소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 협력의 실질적 진전도 기대할 수 있음.

## 4. 고려 사항

### 가. 종합적 시각에서의 평가 필요성

- 한·미 FTA의 체결로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을 적용하게 되고,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개방 친화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일류 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하게 되는 등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임.
-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미 FTA는 한·미 동맹 관계를 21세기에 걸맞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협력 움직임에 대처해 가는 데 있어서도, 한·미 FTA는 유용한 정치적·외교적 기반이 될 것임.
- 즉, 한·미 FTA는 한국의 경제 안보를 신장시키는 동시에 군사 안보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21세기 한국의 포괄적 대외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임.
- 이러한 견지에서 한·미 FTA의 중요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경제적 차원의 득실만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정치·외교·안보 측면의 이점들을 포괄적으로 감안하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함.

한·미 FTA는 한국의 경제 안보를 신장시키는 동시에 군사 안보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21세기 한국의 포괄적 대외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

#### 나. 소모적 논쟁의 지양

-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특정 분야, 예컨대 농업·문화산업 등에서 부담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해당 산업 분야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미 감정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도 한·미 FTA 협상은 한·미 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노정되었던 ‘자주 대 동맹’ 식의 이분법적 해석과 이에 따른 소모적 논쟁이 ‘산업 보호 대 세계화 수용’의 형태로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어,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반미 감정의 고조 가능성이 우려됨.
- 과도한 반미 감정의 고조는 한·미 FTA의 협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를 통해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미동맹 관계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FTA에 따른 ‘손실 분야’(trade losers)에 대한 효과적이고 제도화된 지원 대책을 「무역조정지원법」 등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안보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한·미 동맹의 비전을 적시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정치적 노력이 요구됨.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의 채택도 반미 감정을 일정 수준 순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FTA 협상 과정에서 ‘자주 대 동맹’ 식의 이분법적 해석과 소모적 논쟁이 ‘산업 보호 대 세계화 수용’의 형태로 재연될 수 있어 FTA 체결에 따른 ‘손실 분야’에 대한 효과적이고 제도화된 지원 대책 마련 및 범국민적 공감대 확대의 정치적 노력이 요구돼...

#### 다. 지역 협력 전략의 신축적 재조정 필요

- 한·미 FTA는 경제·통상 측면으로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형성돼 왔던 한국·중국·일본 간의 분업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한편, 정치·안보 측면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견제 성격을 띠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한·미 FTA의 추진은 한·중, 한·일, 미·중, 미·일 관계 등 동북아 국가들간 또는 이들 국가들과 미국과의 정치·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은 한·미 FTA가 현재 한국이 협상

또는 추진 중인 일본, 중국과의 양자간 FTA는 물론, 한·중·일 간의 동북아 FTA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과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 및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역협력 전략의 재조정 작업도 신속성 있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 라. 남북 경협에 대한 지원 확보

-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통해 각각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지역협력 움직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며, 또한 에너지 자원 등을 위요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전략적 경쟁 지역으로 부상되는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공동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임.
-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 및 동아시아 협력, 나아가서는 유라시아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지역협력 전략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핵심 요소임.
-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임.

#### 마. 의제의 다양화에 대처

- 한·미 FTA는 상품 교역에 있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전통적 노력 외에도 의료·금융·법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WTO 규범을 넘어서는 수준의 양자간 합의를 추진하게 될 것임.
- 특히, 최근 미국의 FTA 정책이 소위 '신축적 FTA'(elastic FTA)를 추진함으로써 환경·노동 등 정치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협상의제들을 포함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감안, 향후 협상의제의 선택, 범위 설정 및 추진 속도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들을 적극 개발·활용해 나감으로써 이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

#### 바. 세계 시장에서의 능동적 참여 확대

-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 이미 IT·중공업 분야 등에서 심화

향후 FTA 협상 의제의 선택, 범위 설정 및 추진 속도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 과정의 생산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고 있는 투자와 산업내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기술과 지식 측면에서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이 개발한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 표준을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표준이 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국제 경제상의 주요 추세 중 하나가 선진 경제권과 개도 경제권 간의 연관성 증대임을 감안, 한·미 FTA에 기타 개도국과의 FTA, 예를 들어 한·ASEAN FTA 또는 한·인도 FTA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 기술과 지식 측면에서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이 개발한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 표준을 세계적 공인 표준이 되도록 공동 노력하고, 향후 기타 개도국과의 FTA 체결에도 효율적으로 연계해 나가야...

#### 사. WTO 다자무역 체제의 발전에 기여

- 현재 목도(目睹)되고 있는 지역화의 확산은 한편으로는 국제 경제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의 무분별한 확산('domino regionalism')을 초래함으로써 WTO의 권능을 약화시키고, 세계 경제가 단편화되는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대외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의 유지·강화가 가장 바람직한 선택임이 분명하므로, 비록 FTA 체결을 통해 지역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더라도, WTO의 다자무역 협정의 순조로운 진척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견지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일관되게 지역 협정과 WTO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또 다자 규범의 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2006. 3. 9

토론: 연구부장 김성한  
 연구부장 손성환  
 교 수 최원기  
 편집: 연구원 고광현



부 록

〈표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006년 3월 현재)

단계	대상국	진행 상황 및 전망
기 체 결	칠 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4월 1일 발효</li> <li>• 발효 이후 1년간 대칠레 수출 58.6% 증가</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3월 2일 발효</li> </ul>
	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12월 15일 정식 서명</li> <li>• 2006년 7월 발효 추진</li> </ul>
추 진 중	ASEAN 10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12월 FTA 기본 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 서명, 상품 자유화에 대해 합의</li> <li>• 금년중 잔여 협상 및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예정</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7월 이래 2개월마다 협상 진행중</li> <li>• 연내 타결 목표</li> </ul>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2월 협상 출범 공식 선언</li> <li>• 협상 일정 등을 논의키 위한 사전 실무협의 개최</li> </ul>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9월 양국 정상간 경제보완협정(SECA) 합의</li> <li>• 2006년 2월 SECA 공식협상 개시</li> </ul>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12월까지 6차례 협상 개최</li> <li>•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양허 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 협상 일정 미확정</li> </ul>
공 동 연 구 진 행	인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1월 제4차 공동연구회의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 채택</li> <li>• 2007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한 CEPA 협상 개시 선언(2006. 2)</li> <li>* CEPA: FTA의 일종으로 상품 교역뿐 아니라 서비스·투자·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li> </ul>
	MERCOS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5월 무역협정(TA) 공동연구 개시</li> <li>• 금년 상반기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추가 개최한 후 보고서 채택 예정</li> </ul>
공 동 연 구 추 진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9월 민간 공동연구 개시 합의</li> <li>• 2005년부터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2006년 말까지 예정</li> </ul>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서유럽 국가중 EU에 참여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의 “우리나라 FTA 추진”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검색일: 2006. 3. 3)

〈표 2〉 미국의 FTA 추진 현황

(2006년 3월 현재)

	지역	대상국	주요 내용	체결 일자	발효 일자	비고
기 체 결	미 주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캐나다 양국간 모든 무역 관세 철폐</li> </ul>	1988. 1. 2	198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선진국 간 첫 FTA</li> <li>• NAFTA로 확대</li> </ul>
		캐나다,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제품: 모든 관세 철폐</li> <li>• 농산물: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 관세는 15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li> </ul>	1992.12.17	199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 회원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li> </ul>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칠레산 수입 공산품 중 85%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농산품은 최대 12년 이내에 모든 관세 철폐</li> <li>• 칠레: 미국산 수입 품목 중 87%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12년 후부터는 전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li> </ul>	2003. 6. 6	200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남미 국가간 첫 FTA</li> </ul>
		중미 6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품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대중미 수출품의 약 80%에는 출범 즉시 무관세 적용, 나머지 20%는 5년 및 10년 기간에 걸쳐 단계적 개방</li> <li>- 중미의 대미 수출품은 거의 완전히 무관세화, 섬유 및 의류는 별도 규정을 둠.</li> </ul> </li> <li>• 농산물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대중미 수출품(쇠고기, 면화, 밀, 콩, 포도주, 과일, 야채, 가공품 등)의 약 50%는 즉시 무관세 적용, 나머지 50%는 15년간에 걸쳐 점차적 개방</li> <li>- 중미산 농산물은 대부분 무관세로 수출 (다른 FTA에서 미국의 시장 개방 유예 품목인 '설탕' 조차도 무관세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5. 28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li> <li>• 2004. 8. 5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li> </ul>	<p>당초 2006. 1. 1 발효 예정이었음.</p> <p>※미국은 의회 비준(2005. 7. 27) 및 대통령 서명(2005. 8. 2)을 마쳤으나, (2006. 2. 현재)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는 협정 비준을 마친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FTA에 이어 미주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체결된 두 번째 FTA (CAFTA)</li> <li>• 2004. 8. 5 도미니카 공화국이 참여 (US-DR-CAFTA)</li> </ul>

	지역	대상국	주요 내용	체결 일자	발효 일자	비고
기 체 결	미 주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재 및 공산품: 80%(정보기술 제품, 광업·농업·건설 장비, 의료·과학 기기, 자동차 부품, 제지 상품, 화학제품)는 발효 즉시 관세 철폐</li> <li>- 농산품: 면화·밀·콩·사과·배·복숭아·버찌·아몬드 등 발효 즉시 관세 철폐</li> </ul> </li> <li>※ 페루의 대미 수출 품목 대부분은 「안데안 특혜관세법」(ATPDEA: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2006. 12. 31 종료)에 따라 현재 무관세임.</li> <li>- 정부 조달 투명성 강화</li> <li>- 서비스 부문 자유화</li> <li>- 재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li> <li>- 투자자 및 미국 특허·상표·거래비밀 보호 조치 강화</li> </ul>	2005. 12. 7	비준(의회 승인 및 대통령 서명) 절차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데스 국가들과의 FTA (USA-TPA: US-Andean Trade Promotion Agreement) 체결 추진 과정에서 FTA</li> </ul>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대콜롬비아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재·산업재: 80%(농산물, 건설장비, 항공기 및 부품, 자동차 부품, 비료 및 농화학품, 정보기술 장비, 의료·과학 기기, 목재 등)는 발효 즉시 관세 철폐, 7%는 5년 이내에, 그리고 나머지는 10년 이내에 관세 철폐</li> <li>- 지적재산권 강화</li> <li>-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 시장 개방</li> <li>- 정부 조달 투명성 강화</li> </ul> </li> </ul>	2006. 2. 27	비준(의회 승인 및 대통령 서명) 절차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데스 국가들과의 FTA 일환</li> </ul>
	아 시 아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싱가포르산 수입품의 92%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나머지 품목은 8년 이내 철폐</li> <li>• 싱가포르: 모든 미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li> </ul>	2003. 5. 6	200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 첫 FTA</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제품: 품목의 99%에 대한 관세 철폐</li> <li>• 농축산 분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산 원당(sugar): 협상에서 제외</li> <li>- 쇠고기: 18년 관세 유예기간</li> </ul> </li> </ul>	2004. 5. 18	2005.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캐나다 이후 선진국과 체결한 첫 FTA</li> </ul>

	지역	대상국	주요 내용	체결 일자	발효 일자	비고
기 체 결	중동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의 대미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공산품: 무관세</li> <li>- 특정 농산품: 기존 WTO 규정에 따라 특별면세 지위 보유</li> </ul> </li> <li>• 미국의 대이스라엘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공산품: 무관세</li> <li>- 특정 농산품: 이스라엘의 수입세 부과 및 관세할당(TRQs) 제도 유지 허용</li> </ul> </li> </ul>	1985. 4. 22	1985.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체결한 첫 FTA로, 미·요르단 FTA 등 향후 모델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li> </ul> </li> </ul>	2004. 7. 27 (서신 교환)	※미국: 2004. 7. 27부터 45일 이후 ※이스라엘: 2008.12.31까지 관세 철폐 완료	
		요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통해 2010년도에 완전 무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전자 상거래 분야 포함</li> </ul> </li> </ul>	2000. 10. 24	2001.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아랍 국가간 첫 FTA</li> </ul>
		모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품 품목의 95%에 대한 관세 철폐</li> <li>• 나머지 품목은 9년 이내에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의 경우, 미국산 가금류, 쇠고기, 밀이 관세 쿼터를 부여받음.</li> </ul> </li> </ul>	2004. 6. 15	200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同 FTA는 2013년경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를 창설한다는 부시 대통령 전략 구상의 일환임.</li> </ul>
		바레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재 및 공산품 교역에 대한 관세는 완전 철폐</li> <li>• 기타 관세는 10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li> </ul>	2004. 9. 14	2005. 1. 1 ※그러나 바레인 측의 「지적재산권법」 수정으로 인해 시행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GCC(걸프협력회의) 회원국간 첫 FTA</li> </ul>
		오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품 품목의 100%에 대한 관세 철폐</li> <li>• 농산품 품목의 87%에 대한 관세 철폐</li> <li>• 단, 오만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직물은 예외(관세 부과)</li> <li>• 서비스 무역 자유화, 지적재산권 및 투자 보장 등 포함</li> </ul>	2006. 1. 19	비준(의회 승인 및 대통령 서명) 절차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FTA 창설 일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11. 15, 오만과의 FTA 협상 의도 의회 통보</li> <li>- 2005. 10. 7 개월간의 협상 종료</li> </ul> </li> </ul>

지역	대상국	진행 상황	비고
미주	안데스 지역 국가들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 11. 18, Robert B. Zoellick USTR 대표, FTA 협상 개시 의회 통보</li> <li>• 2004. 5. 18~19, 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와 FTA 협상 개시</li> <li>• 2005. 12. 7, 페루와의 FTA 체결 (P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with Peru)</li> <li>• 2006. 2. 27,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li> </ul>	
	파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4. 26, FTA 협상 개시</li> <li>• 2005. 11, FTA 협상 종료</li> <li>• 2006. 2. 16 현재, 농민의 반대로 FTA 체결 지연</li> </ul>	• 당초 2006. 1. 체결 예정이었음.
중 아 시 아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10. 26, 부시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아세안 행동계획'(EAI: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을 제안.</li> <li>• 2002. 11. 19, Robert B. Zoellick USTR 대표는 아세안 경제각료회의 비공식 임시회의(마닐라 개최)에서 'EAI'를 설명하고, 아세안과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li> <li>• Robert Zoellick 미 국무부 차관과 Thaksin Shinawatra 태국 총리간 회담(2005. 5)에서 '미·아세안 FTA'가 의제로 포함됨.</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10. 23, FTA의 사전 단계인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 Agreement)</li> <li>• 2003. 10. 19, 미·태국간 FTA 협상 의도 발표 (George Bush 미 대통령, Thaksin Shinawatra 태국 총리)</li> <li>• 2004. 2. 12, 태국과의 FTA 협상 의도 의회 통보 (Robert B. Zoellick USTR 대표)</li> <li>• 2005. 4. 4~8, FTA 협상 제3차 예비협의 개최(파타야) ※ 태국 선거(2005. 2)에서 타이락당(Thai Rak Party)의 압도적 승리이후 개최된 첫 협상 - 지적재산권(저작권·상표·특허 보호), 투자 자유화 등 협의</li> <li>• 2006. 1, FTA 협상 최종 회의 개최 (치앙마이) ※ 양국간 FTA 체결은 탁신 총리가 요구한 4월 2일 선거 이후로 연기됨.</li> </ul>	• 미국이 싱가포르·호주·칠레와 맺은 FTA 모델 준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 1. 9, Richard Crowder USTR 농업무역 담당 교섭자는 미국 정부가 이집트·한국·말레이시아·스위스와 FTA 협상을 고려중이라고 밝힘.</li> <li>• 2006. 1. 18, 노무현 대통령, 「연두사」에서 미국과의 FTA 추진 의사 표명</li> <li>• 2006. 2. 2, Rob Portman USTR 대표, 한국과의 FTA 협상 의도 발표 (한·미 양국 공식 발표)</li> <li>• 2006. 3. 6, FTA 협상 제1차 예비협의 시작 ※ 2006년 6월경, 2007년 전반기에 FTA 협상 종료를 목표로 협상 시작 예정</li> </ul>	• FTA 협상은 90일간의 협의 기간 만료후 시작될 예정.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5. 10, TIFA 체결</li> <li>• 2006. 1. 9, Richard Crowder USTR 농업무역 담당 교섭자는 미국 정부가 이집트·한국·말레이시아·스위스와 FTA 협상을 고려중이라고 밝힘.</li> <li>• 2006. 2. 15, Rob Portman USTR 대표, 공식적인 FTA 협상 개시 임박 발표</li> </ul>	

	지역	대상국	진행 상황	비고
추진중	중동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10. 13, 두바이를 방문한 Robert Zoellick 미국 무역대표부 특사, 2004년 7월에 체결한 FTA 사전단계인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 Agreement)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약 90일 간의 본격적인 FTA 유예기간을 갖을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본격 협상을 위한 사전 막후 접촉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li> <li>• 2004. 3. 15, TIFA 체결</li> <li>• 2004. 11. 15, UAE와의 FTA 협상 의도 의회 통보</li> <li>• 2005. 3. 8~11, FTA 협상 제1차 협의 개최 (아부다비)</li> <li>• 2006. 1. 30, FTA 협상 제4차 협의 개최 (런던)</li> </ul>	• MEFTA 창설 일환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 양국간 무역 자유화를 관장할 두 기관(미·이집트 파트너십 및 대통령위원회)을 설립하자는 '무바라크-고어 구상'(1994)에 따라 Al Gore 부통령과 Hosni Mubarak 대통령은 FTA 가능성에 대해 토론 시작.</li> <li>• 1999. 7, TIFA 체결로 토론의 절정에 이룸.</li> <li>• 2005년 9월 이후, 공식적인 FTA 협상 돌입</li> <li>• 2006. 1. 9, Richard Crowder USTR 농업무역 담당 교섭자는 미국 정부가 이집트·한국·말레이시아·스위스 FTA 협상을 고려중이라고 밝힘.</li> <li>• 2006. 2, 이집트 의회 선거(2005. 12)의 부정행위와 폭력 만연, 자유주의적 야당 지도자 Ayman Nour의 감금 조치 이후 FTA 협상 연기 결정</li> <li>※ 당초 2006년 말~2007년 초에 FTA 체결을 목표로 했음.</li> </ul>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관세동맹 국가들 (SACU: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와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말경, SACU 국가들과의 FTA 협상 의도 의회 통보</li> <li>• 2003. 1. 13, FTA 협상 로드맵에 합의</li> <li>• 2003. 6. 2, 공식적인 FTA 협상 시작 (남아공 프레토리아)</li> <li>• 2004. 12, FTA 협상 종료 모색</li> <li>• 2006. 2. 7, Rob Portman USTR 대표는 지난 2년반 동안의 지지부진한 FTA 협상 지속 추구 의사 표명</li> </ul>	• SACU 5개국은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에 따라 대미 수출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2006. 3 현재)
구주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여름, 스위스 연방경제부(SECO: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는 미국과의 FTA 구상 착수</li> <li>• 2005년 초,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예비 회의 개최 의도 발표</li> <li>• 2006. 1. 9, Richard Crowder USTR 농업무역 담당 교섭자는 미국 정부가 이집트·한국·말레이시아·스위스와 FTA 협상을 고려중이라고 밝힘.</li> </ul>	• 동 FTA가 체결될 시, 유럽 국가와의 첫 FTA임.	

〈출처〉 미 무역대표부(USTR; <http://www.ustr.gov>), [bilaterals.org](http://www.bilaterals.org)(<http://www.bilaterals.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내외 다수 관련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표 3〉 미국의 FTA 체결 및 협상 대상국과의 관계

	지역	대상국	경제 규모(2004)		교역 규모 (US\$ bn, 2005)			미국 상품에 대한 평균관세율 (%, 2002)	군사/경제 원조 (US\$ m, 2001)	
			GDP (US\$bn)	일인당 GDP (US\$)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기 체 결	미주	캐나다	994.1	31,134	211.3	278.8	-76	4.1	0	
		멕시코	676.5	6,445	120.0	170.2	-50.6	18.0	54	
		칠레	94.1	6,121	5.1	6.7	-1.4	7.0	1	
		도미니카	18.5	2,038	4.7	4.6	0.1	9.1	52	
		페루	69.6	2,525	2.3	5.1	-2.8	13.6	276	
		콜롬비아	97.7	2,156	5.4	8.8	-3.4	12.0	153	
	아시아	싱가포르	107.0	25,290	20.6	15.1	5.5	0.0	0	
		호주	690.3	33,869	15.8	7.3	8.4	4.4	0	
	중동	이스라엘	117.5	17,269	9.7	16.8	-7.1	n.a.	4,789	
		요르단	11.2	1,987	0.6	1.2	-0.6	16.6	336	
		모로코	53.4	1,721	0.53	0.44	0.08	26.1	26	
		바레인	10.0	13,590	0.35	0.43	-0.08	8.5	0	
		오만	21.8	8,087	0.59	0.55	0.04	n.a.	n.a.	
	협 상 중	미주	에콰도르	30.3	2,325	1.97	5.8	-3.8	11.6	33
			볼리비아	8.8	974	0.21	0.29	-0.07	9.2	192
파나마			13.5	4,246	2.2	0.3	1.8	7.9	8	
브라질*			604.7	3,375	15.3	24.4	-9	13.8	25	
아시아		말레이시아	117.8	4,630	10.5	33.7	-23.3	n.a.	n.a.	
		태국	163.5	2,510	7.2	19.9	-12.7	15.8	22	
		한국	681.0	14,120	27.7	43.8	-16.1	8.4	0	
중동		아랍에미리트	89.7	20,657	8.5	1.5	7	n.a.	n.a.	
		이집트	76.6	1,044	3.17	2.1	1.0	17.7	3,005	
아프리카		남아공**	212.0	4,990	3.9	5.9	-1.9	8.2	89	
협 상 추 진	미주	우루과이	17.3	5,272	0.3	0.7	-0.4	15	0	
	아시아	대만	305.3	13,471	22.0	35.0	-13	7.0	0	
		파키스탄	94.9	617	1.2	3.3	-2.1	16.5	90	
		스리랑카	208.3	18.6	0.2	2.1	-1.9	8.5	18	
		필리핀	86.4	1,002	6.9	9.2	-2.4	5.3	86	
	중동	쿠웨이트	53.0	19,258	2.0	4.3	-2.3	n.a.	n.a.	
	아시아	뉴질랜드	95.6	23,500	2.7	3.2	-0.5	3.0	0	
	구주	스위스	321.8	43,857	10.7	13.0	-2.3	n.a.	n.a.	

\* FTAA(미주자유무역지대)에는 브라질 이외에도 미주 지역 34개국이 참여함.

\*\*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회원국은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임.

〈출처〉 Jeffrey J. Schott(ed.), *Free Trade Agreements: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antional Economics, April, 2004), p.360, p.368: <http://www.eiu.com>의 EIU profile; <http://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index.html>의 각국과의 교역 현황을 참고로 재구성한 것임.

外交安保構想の産室  
先達精銳 外交官の産室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우)137-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t.go.kr](mailto:ifans@mofat.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